

전남도립미술관 '지역·세계·미래' 키워드로 관객 맞이



지난해 전남도립미술관이 개최한 어린이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KBS교향악단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다문화 인권 전'(가칭), '청년작가 교류전-전남·경남', '현대미술의 거장: 오지호'(가칭), '우제길 초대전', '색채 힐링전'(가칭)...

지난해 약 12만 7000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해 전국적인 미술관으로 부상한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올해도 의미있는 기획과 전시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작년 미술관은 크게 두 전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조우'이며 다른 하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현대미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우른 '영원, 낭만, 꽃'을 비롯해 '시의 정원',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가 그것.

'이건희 컬렉션'은 당초 예정일을 지나 2주간 연장될 만큼 전국 각지의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기증자 이건희 회장의 뜻과 남도 출신 화가들의 예술혼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 외에도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대가들의 작품을 실견할 수 있다는 점이 열풍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순천만정원박람회 연계 전시는 해외 교류라는 외형적 효과는 물론 전남 예술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자리였다.

미술관은 올해 지역과 세계, 미래를 '키워드'로 한 전시를 열 계획이다.

이지호 관장은 "올해 전시는 크게 지역, 세계, 미래를 모티브로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며 "특징이 있다"며 "지역 작가를 소개하고, 세계 미술과 호흡하며, 미래의 미술관을 지향하는 전시를

'청년작가 교류전-전남·경남' '현대미술의 거장: 오지호' 전 JMA 어린이미술페스티벌 등



오지호 작 '설경'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미술관은 시대별 지역작가를 소개하고 조명한다는 모토로 '청년작가 교류전-전남·경남'을 연다. 두 지역 대표 청년작가 14명의 작품과 예술을 들여다볼 수 있다.

광양 출신 빛의 작가인 우제길 초대전도 예정돼 있다. 색면추상의 대가인 우제길 화백의 지금까지 화업을 조명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사의 주요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오지호 작가의 작품을 조명하는 전시도 계획돼 있다. 화순 출신 오지호 화백은 "한국적인

상주의 선구자'로 불릴 만큼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했던 작가다. '현대미술의 거장: 오지호'(가칭)를 매개로 그의 생애와 작품이 발현하는 심미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현대미술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춘 전시도 관객과 만난다. 오늘날 다문화, 인종 등의 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사적 양상과 맞물려 있다. 미술관은 '인권'을 매개로 민주와 인권과 평화 등을 환기하는 전시를 연다는 계획이다.

현대인들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피로에 짓눌려 있다. 일상에 찌든 심신을 풀어낼 수 있는 예술 작품과의 만남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미술관은 '힐링'을 주제로 한 융복합 전시를 매개로 미래 미술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벨기에 출신 작가 리너스 반 데 벨데 개인전도 아트플랫폼인 아트선재센터와 협업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해 미술관을 모티브로 한 여러 관점을 논하는 다크영향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상영을 비롯해 아피자트 풍 뒤라세타운의 첫 VR(가상현실) 공연도 펼쳐진다. 이밖에 제2회 JMA 어린이미술페스티벌 외에도 각종 워크숍과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소라 학예연구팀장은 "올해도 다채로운 시각으로 전남도립미술관의 특화된 전시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며 "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특화해 어린이를 위한 맞춤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ACC 신년음악회,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17일 예술극장 극장1... 여자경 지휘·소프라노 황수미 등

지휘자의 화려한 바톤 테크닉에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감상하며 문화예술로 한 해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지는 'ACC 신년음악회'가 올해도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재단 설립 2주년을 기념하는 'ACC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예술극장 극장1.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가 공연의 막을 올린다. 드보르작의 9개 교향곡 중 마지막 작품으로 금관부의 표현, 제2악장에서악곡을 폭넓고 느리게 표현하는 라르고 등 화려함이 깃들여 있는 곡이다.

오페라 및 오페라타 작품들도 관객들을 만난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타 '박쥐' 서곡은 KBS교향악단이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에 비해 희극, 음악적 측면에서 클래식하다는 평가를 받는 오페라타 중심의 레퍼토리로 구성됐다. '빈 스타일'의 오페라타가 런던을 거쳐 브로드웨이로 흘러가 뮤지컬이 됐다는 측면에서, 현대에는 둘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기도 한다.

이어 레온카발로 곡 '아침의 노래', 푸치니 작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등은 브니엘예고와 한예중 음악원 성악과 등에서 수확한 테너

정필립의 목소리에 담긴다. 소프라노 황수미도 임공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과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로 관객들을 만난다.

황수미는 국제 3대 음악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린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2014년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및 동 대학원을 비롯해 독일 뮌헨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김효근의 '첫사랑',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중 '카탈로그의 노래'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 미스트롯2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켰던 바리톤 김병민이 부른다. 대미는 세 성악가가 함께 부르는 오페라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집묵하고'가 장식한다.

지휘를 맡은 마에스트라 여자경은 강남문화재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대전시립교향악단 제9대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다.

ACC재단 관계자는 "재단 설립 2주년과 갑진년 새해를 기념하는 'ACC신년음악회'를 매년 기획, 개최하고 있다"며 "공연장에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자리해 한 해를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CC홈페이지 등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장성 행주기씨 기효간 종가 고문서 1074점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장성 행주기씨 기효간 종가는 기묘사와 이후 기원(1481-1522)이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에 터를 잡은 이후 지금까지 대대로 세계해 오는 호남의 대표 명문가다. 특히 기효간을 비롯해 기정, 기정진, 기삼연 등 학자와 관료, 의병, 독립운동가 등을 배출했다.

기효간(1530~1593)은 생전에 학문에 전념하고 후진양성에 주력해 호남의 은덕군자(隱德君子)로 불렸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아들 다섯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켰다. 후일 6부자가 모두 선무원종공신에 봉해지기도 했다.

기효간 종가 고문서가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눈길을 끈다. 3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따르면 기효간 종가 고문서 1074점이 전남도 유형문

화재로 지정됐다. 특히 세종 연간에 발급된 15세기 임명문서 사례, 관직 활동 관련 조보 사례를 비롯해 강세황(1713-1791), 이삼만(1770-1847) 친필첩 등이 이목을 끈다.

안동고 부장은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고문서는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상태가 양호하다"며 "조선시대 제도사는 물론 사회사, 지역학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6·25 전쟁으로 종가가 전소돼 많은 문헌이 소실됐으나 종손의 노력으로 3000여 점을 보존할 수 있었다"며 "보존된 자료는 지난 2018년 호남진흥원 개원 당시 종가에서 1호로 기탁돼 오늘까지 보존 관리돼 왔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관직 활동 과정 중 생산된 '조보'.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10일 무안·11일 순천·12일 담양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2024년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에 앞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예 지원사업이다.

오는 10일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공연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11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 12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담빛 농업관에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공연작품제작, 청년예술활동지

원을 비롯해 창작공간활용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등 세부 공모 요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사업 담당자별 1:1 맞춤 설명과 개별 질의응답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오는 15-19일까지 30인 이상이 요청하면 '찾아가는 설명회'도 수시로 연다.

전남문화재단 서주현 담당자는 "인구가 많은 무안, 순천, 담양 등을 중심으로 작년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고, 다양한 지역에 '찾아가는 설명회'도 요청을 받아 작년 3회 진행했었다"며 "올해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에서 소외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